

3/8/20

설교 제목: 대홍수 심판과 남은 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7 장 1-24 절

- (창 7: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 (창 7: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 (창 7: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 (창 7: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 (창 7: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창 7: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 (창 7:7)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절관주** 히 6:18
- (창 7: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 (창 7:9)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 (창 7: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 (창 7: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 (창 7: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 (창 7: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 (창 7: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 (창 7: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 (창 7: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리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 (창 7: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절관주** 시 104:26

- (창 7: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절관주** 시 104:6
- (창 7: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 (창 7: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절관주** 욥 22:16, 마 24:39, 눅 17:27
- (창 7: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 (창 7: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절관주** 히 11:7, 벧전 3:20
- (창 7: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절관주** 창 8:3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 측면만을 듣기 원하고 또 믿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 싶어하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목사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겠느냐고 하며 심판은 없고 따라서 지옥도 없다고 전합니다.

정말 바보같은 어이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궤변은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의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조그만 죄일지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완전한 공의의 잣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여도 용서는 해 주시되 지은 죄에 상당한 죄값은 반드시 물으셔서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냥 말씀으로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될 걸 뭐하러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 해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 공의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게 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 공의의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닥칠 심판을 경고하시며 그 심판에서 살아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으로 부패한 사람과 세상을 멸절하신 사건과 그 와중에서 살아 남은 자 노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7 일 전입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 세였으니 480 세에 말씀을 받아 120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대홍수를 내리기전 남을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챙기십니다.

(창 7: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십니다.

(창 7: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창 7: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지시가 6 장에서와 다릅니다.

6 장에서는 방주에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방주에 들이라고 하십니다.

(창 6: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창 6: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6 장에서는 종족 보존을 위한 목적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고 7 장에서는 노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염두에 두고 방주에 들일 정결한 짐승의 수를 계산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정결한 짐승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족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인 한쌍 이상의 정결한 짐승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8 장에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둘째, 모든 것을 멸절하고 새로 시작하려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과 함께 부정한 짐승들도 방주에 들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마침 이때 부정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면 될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것들까지 방주에 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을 때 이 정결한 짐승들의 공로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한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최후통첩을 내리시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창 7: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창 7: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 세상이 멸망한다고 저런단 말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 7: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창 7:7)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창 7: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창 7: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창 7: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창 7: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창 7: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창 7: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당신이 택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기를 마치자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자 그때서야 사람들이 노아가 들려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방주에 달려가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닫힌 문은 누구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too late!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곧 심판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지 이천 년이 지났으나 여지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라도 주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말씀대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더디 오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날' '그 날' '마지막 날' 그리고 '남은 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와중에도 반드시 살아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두 길로 옵니다.

한 길은 세상의 종말로 오고 또 다른 한 길은 개인의 죽음으로 옵니다.

그 와중에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살아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또 눈여겨 볼 대목이 있는데 '곧 그날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입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 노아의 가족 여덟 식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물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자동적으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족 중 먼저 믿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에게 특별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심판 사건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아닙니다.

모세는 정확한 날짜를 말함으로써 대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창 7: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창 7: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 7: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리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창 7: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창 7: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창 7: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창 7: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창 7: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창 7: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창 7: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참담한 인류 멸망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남은 자가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때인지라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정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때가 가까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고 헌금을 했고 여러 봉사 활동으로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등의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여 구원을 보장받게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고후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가 차면 그 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것입니다.

때를 놓쳐 땅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심판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즉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가족과 친지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아직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남은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